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혁신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다.

현재 핀테크 분야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연결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간편 결제와 송금, 크라우드펀딩, 웰스테크, 인슈어테크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웰스테크(WealthTech)는 부(Wealth)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자산 관리 핀테크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투자자의 리스크 관련 성향, 목표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플랫폼이다.

그리고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상품개발, 계약 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한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 보험료 산정에 적용

금융 혁신의 아이콘, 핀테크의 명암

하거나 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운전행태 관련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연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계약 심사, 보험사가 거래 유형과 약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고객상담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는 우리의 일상에서 질 높은 금융상품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는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핀테크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경우에 핀테크 산업 중 인슈어테크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보험금 청구 분류, 여행 및 전자제품 관련 소액 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재생 에너지 보증 등 ESG 연계 보험은 유럽 핀테크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신기술, 기업 성장에 유리한 입지를 보유한 핀테크 허브로 80개 이상의 주요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테크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네덜란드 핀테크 산업 규모는 유럽 2위, 벤처캐피털 펀드 규모는 유럽 3위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핀테크 확산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한 관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있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 등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점을 악용한 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핀테크 발전은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 데이터 보안사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보안사고에 따른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의 생체정보 확인 등은 기존의 비밀번호와 달리 갱신이나 변경이 불가능하여 생체정보 유출 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처럼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핀테크와 결합된 새로운 파생상품 및 서비스가 검증 없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신종 금융사기와 투자사기의 문제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고



정 희 자

광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학교폭력예방교육전문가

요즘 교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아려온다.

아이들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린 마음이 자리 잡기도 전에 서둘러 상처를 되돌려 준다. 예전에는 갈등도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 앞에서 갈등은 더 이상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돼 버렸다.

2023년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9%, 그중 초등학생은 3.9%로 가장 높았다(교육부, 2023).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37.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교육부, 2023).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통계는, 아이들의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다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다. “선생님, 직접 말하면 더 무서워요. 카톡은 그냥 보내면 되니까...”

화면 밖에서는 표정도 숨결도 사라진다. 말은 가벼워지고 책임은 멀어진다. 또 다른 아이는 말했다. “친구가 싫으면 단톡방에서 내보내요. 그

사라진 마음, 빠른 감정: 학교폭력의 새로운 그림자

리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나 방에서 밀려난 아이는 한동안 같은 질문만 되뇌인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말 없이 이루어지는 배제는, 때로 말보다 훨씬 잔인하다. 좋음과 미움, 질투와 분노가 몇 줄의 메시지로 쏟아지고, 답장이 늦는 것 만으로도 관계가 무너진다. 천천히 느끼고 기다리고 조절하는 감정의 과정은 점점 사라졌다.

아이들은 감정을 다루지 못한 채, 툭 건드리면 금세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학교를 살아가는

학교폭력은 ‘나쁜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마음을 모르는 아이와, 상대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아이가 마주친 순간의 충돌이다. 투명해진 마음 위에 떨어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다. 아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빠르게 연결되지만... 정작 마음은 더 고립되고, 관계는 더 얇아진다.

상대의 눈빛을 읽고, 얼굴을 마주하며 감정을 조율하던 경험이 줄어든 자리에는 혼자 견뎌야 하는 긴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답을 예술에서 찾는다. 예술은 아이들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안전한 공간이다.

색으로 마음을 보듬고, 몸으로 진심을 움직일 때, 소리로 울림을 전할 때, 아이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던 감정을 세

상 밖으로 내보낸다.

예술은 마음을 깨운다. 깨어난 마음은 비로소 타인을 향한다. 그 순간, 끊어졌던 소통은 다시 이어진다.

나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공원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기획하고 연출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그중 한 아이가 공연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친구가 왜 슬펐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춤을 가르쳤지만, 그 아이는 마음을 배웠다. 그 마음 하나가 친구에게 닿았고, 교실의 공기를 바꾸었고, 학교의 하루를 달라지게 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학교폭력 예방은 거대한 정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이 한 명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순간, 그 작은 울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하고, 부모는 “왜 그랬어?”보다 “네 마음이 어땠나?”를 먼저 물어야 한다.

감성교육은 교과목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며, 날카로운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상처 난 마음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어 주는 힘이다.

아이들이 다시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공원의 무대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기습폭설 대비 사고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자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추운 날씨에 갑작스레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게 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더욱이 고갯길이고 응달진 급커브길에 대부분 인 놓여진 지역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김덕형·장성경철서 삼서파출소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행정난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신뢰까지 무너질 판

광주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백운교차로 280m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곳으로 복공판 지지대 철거를 위해 폭 10m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자 일부 차로가 통제된데 따른 것이다.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했고 교통 변화에 대해 예고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호체계 조정 등 조치했다는 입장이나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걸린다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며 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 ‘질서있는 정체’라는 강기정 시장의 언급에는 분통이 터지고 만다. 실제로 강 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차선이 감소함에 따라 바뀐 것은 있지만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는 많이 (정체가) 해소된 걸로 보고받았다”면서 이번 추가 마지막 힘든 피크 지점으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양해를 요청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단계 (시청-광주역) 개통 시

점이 2027년 말로 또 다시 미뤄졌으며, 2023년 12월 착공한 2단계 (광주역-시청) 역시 2030년 목표보다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중단된 수완지하차도 구간의 노선 변경에 대한 검증 부족도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고층 건물과의 근접으로 인한 안전, 지장물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위험요소를 간과함으로써 결국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이미 예견됐었다. 유감이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도시철도 사업에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2호선은 계획 수립, 설계 등 모든 과정이 부실했던 것이라며 목소리가 확산하는 중이다. 시민을 위한 것이니, 감당하라고 한다. ‘성장통’이라는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시민들 처지부터 살펴 배려해야 한다. 수년 간 이어지는 대규모 공사에서 비롯된 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현장의 여건부터 면밀 점검해야 한다.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당부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참여가 필요한 2026 나눔캠페인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대장정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사랑의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18민주광장에서, 전남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남OK도민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일정으로 목표액은 각각 51억2천만원, 114억원이다.

첫날 광주에선 기아오토랜드와 광주은행, 농협광주본부, 케이티엔지 광주전남본부, 하나는 행동 5개 기업이 기업 첫 기부자로 등록했다. 또 아너소사이어터(1억원 이상 고액기부) 4명 신규 가입과 광주지방세무사회 세무사 24명의 나눔리더(100만원 이상 기부) 단체 가입식도 함께 치러졌다. 전남지역은 한전KPS,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도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동참해 열기를 달궜다.

그 어느 때보다 불우 소외이웃에게는 올해 겨울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깊어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웃음이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미치

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기 마련으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시급한 것이다. 사랑의열매 측도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2026 나눔캠페인의 대성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시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으면 가능하다. 기업들도 적정 이윤을 환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훈훈한 온기를 키워 이상 한파를 녹여야 한다. 온도탑은 1%가 모일때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막이 올랐다. 전체 금액은 4천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불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길 바란다. 예년처럼 목표를 초과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이변에도 거둘 것이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도탑이 뜨겁게 끓어오르길 기대한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부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8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